

임플란트, 연령에 상관없이 인기 얻고 있는 이유?

기사입력 2012-07-23 09:49 최종수정 2012-08-02 11:07



[김보희 기자]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 불리는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고 있다. 그동안 치아가 상실된 경우의 대표적인 치과치료 방법이라면 브리지를 꼽을 수 있다. 브리지 역시 훌륭한 보철물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치아 한 개가 상실되면 옆에 있는 두개의 치아 표면을 삭제한 후 3개의 치아에 보철물을 씌워야 한다. 때문에 치아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썩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임플란트는 노화로 인한 대체치아의 역할은 물론이고 충치로 인한 발치의 경우에도 원래 치아의 기능과 미관을 가장 가깝게 구현하는 보철물의 역할을 해낸다.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의 최대 단점은 비싼 가격이었지만 최근에는 국산 임플란트를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가격 또한 현실화 된 것이다.

임플란트는 외산이 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그만큼 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국산도 외산에 비해 뒤지지 않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오히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재료가 생체친화성 금속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주로 하는 시술에서 벗어나 거의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시술방법이 되고 있다. 10~20대에는 주로 사고나 충치로 인하여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는 임플란트 식립후 회복속도가 빠르고 뼈이식과 같은 제반수술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추천할만하다.

30~50대의 중, 장년층이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편의성은 물론이고 외관상으로도 깨끗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유리하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틀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작력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마음껏 음식을 씹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초기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편이지만 수명이나 저렴한 관리비용으로 보자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브리지나 틀니보다도 경제적이다. 다만 또한 임플란트는 환자별로 체질에 맞는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풍부한 시술경험과 의료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박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치아가 손실되거나 상실 되었을 때 치아의 기능과 형태적인 심미성, 저작의 간편함, 정확한 발음,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병원을 찾을 때에는 이 같은 사항들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한다.

김 원장은 또 "임플란트는 의외로 복잡한 시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시술경험이 많아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전문의에게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국내 '물 좋은 해수욕장' 어디? best 5 선정**

▶ **불면증 여성 1.7배 ↑, 50대 여성 무려 65% "엄마 혼자 일하니?"**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제7호 태풍 '카눈' 소멸, 태풍 지나고 30도 무더위... 향후 강수전망은?**

▶ **[리뷰] 구글의 첫 레퍼런스 태블릿 넥서스7, 실제로 써보니...**

